6-Episode Season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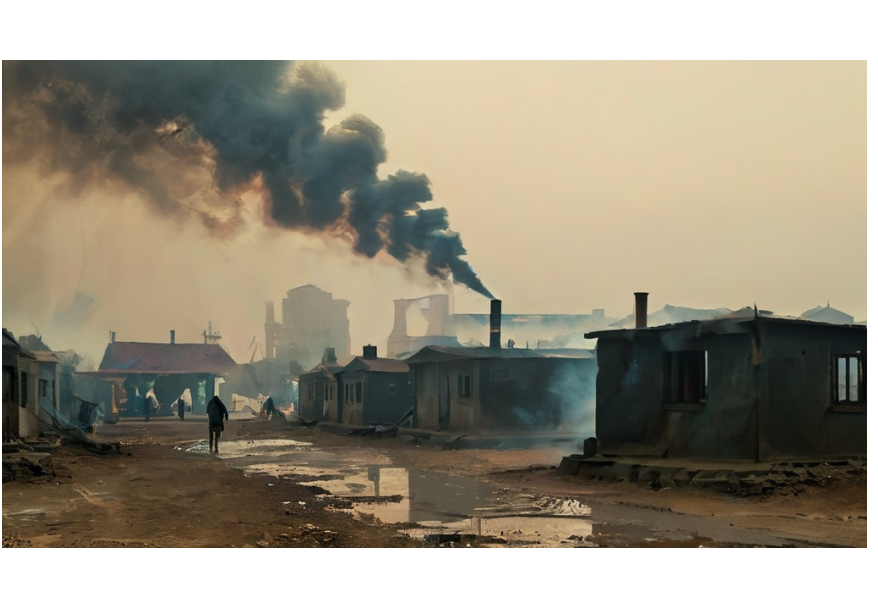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8

❖

서창의 화장터에 오래간만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관을 화로에 집어넣고, 불을 지핀 동녘과 덕현은 한참동안 멍하니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참 뒤, 동녘은 보따리에 정성스럽게 감싼 유골함을 덕현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어디에 모시려고? 알아둔 곳은 있어?”

곧 동녘은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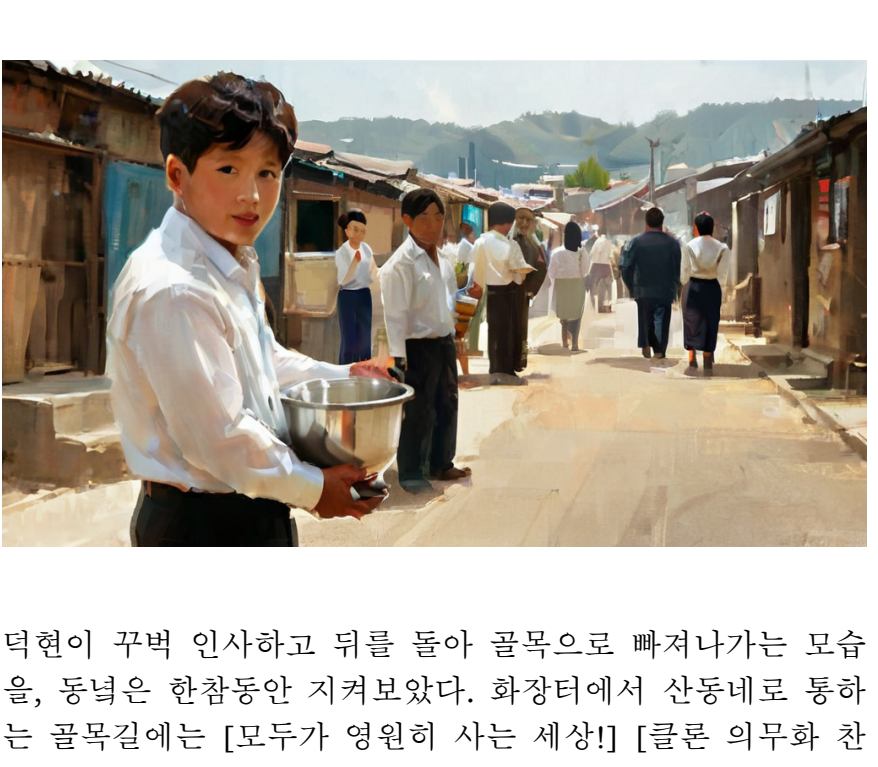
“미안해. 클론만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덕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형, 마침 형이 계셔서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덕현이 유골함을 품에 껴안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제가 모시고 싶어요. 아마 할머니도 저랑 함께 하고 싶어하실 거예요.”
“그래, 그리고 덕현이 너는 형이 꼭 책임지고 클론해서 다시 뛰어다니게 만들어줄게.”
“감사해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덕현이 꾸벅 인사하고 뒤를 돌아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동녘은 한참동안 지켜보았다. 화장터에서 산동네로 통하는 골목길에는 [모두가 영원히 사는 세상!] [클론 의무화 찬성!] 같은 플래카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동녘도 뒤를 돌아 다시 돌아서려는 찰나에, 의식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녘, 아니 백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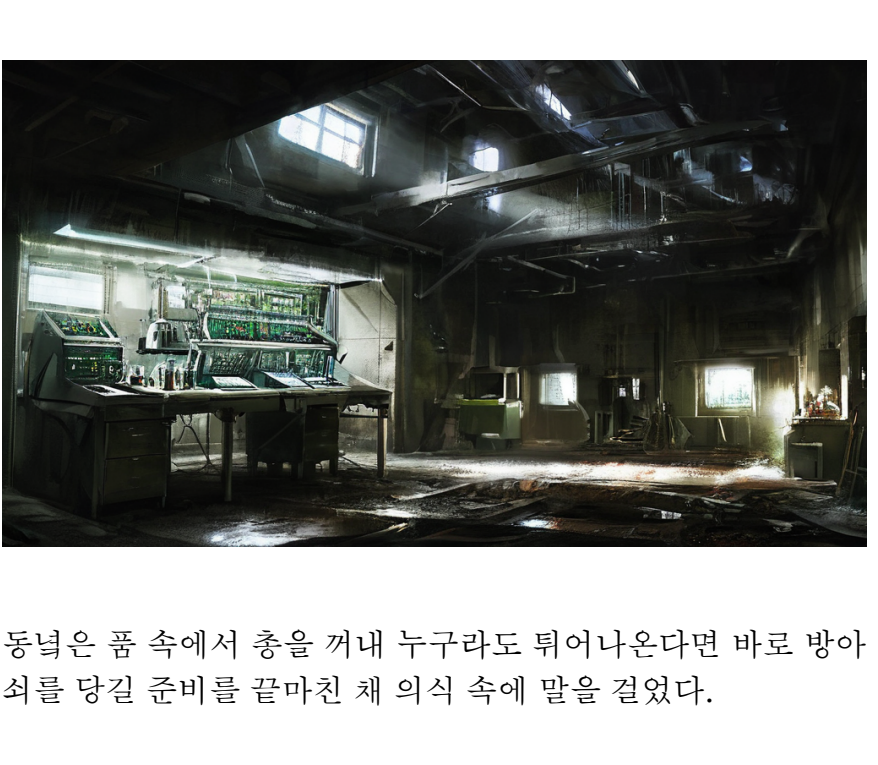
동녘의 동공이 커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목소리가 말한 대로 동녘이 아니라 백호였지만.

‘당신 누구야, 내 몸에 어떻게 들어와 있지?’
‘우선 네모 기지 쪽으로 오지 않겠나?’
‘누구야 당신? 서창인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급해진 동녘이 화장터 뒷쪽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로 향했다. 오리엔티스의 대원들이 손을 썼는지, 비밀기지로 통하는 문에는 [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자물쇠로 봉쇄된 상태였다. 동녘은 주먹으로 자물쇠를 뜯고 문을 열었다.

❖

네모 기지 안은 지난 번의 습격으로 인해 장비 대부분이 부숴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조명도 켜지지 않아,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제대로 작동되거나 필요한 장비들은 오리엔티스 측에서 회수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다.



동녘은 품 속에서 총을 꺼내 누구라도 튀어나온다면 바로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끝마친 채 의식 속에 말을 걸었다.

‘어디있나, 당신? 도대체 누구야?’
‘우리 동녘이는 역시 머리가 좋지 않은가? 소울라이딩을 한 기억도 없는데 마음 속에서 대화를 주고 받고 있다면, 그건 누굴까?’
‘장난하지 말고 얼른 나와!’
‘알겠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나오더라도 총은 쏘지 말게.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고장난 장비들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걸어나왔다. 아까 재호의 의식을 주입했을 때 보였던 기억 속 검은 사제복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동녘이 잔뜩 긴장한 채 총을 겨누고 있는데, 사제복을 입은 사람은 무장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듯이 양손을 펼쳐 보였다.

“나에겐 아무 무기도 없네. 그 총 좀 내려주겠나?”
“당신이 누군지 알고? 내 의식 속엔 어떻게 들어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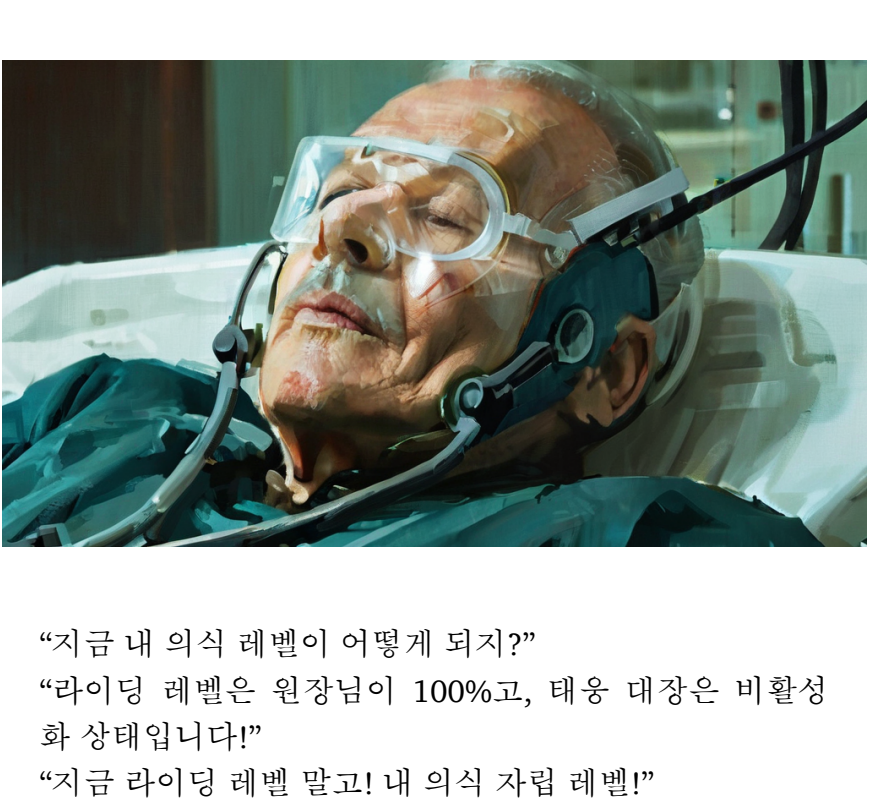
사제복을 입은 남자는, 목소리로 보아 남자였다, 어깨를 들썩이며 키득키득 웃더니 말했다.

“자기 의식 속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게 무슨 소리야?”

사제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모자를 걷어 내렸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동녘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 챈 남자는 조명이 닿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나왔다. 빛이 얼굴에 닿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다름 아닌 백호의 얼굴이었다.

❖

같은 시각, 한재호는 호흡기를 단 채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태웅, 정확하게는 태웅의 몸에 라이딩 한 재호가 직접 자신의 몸에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자꾸만 현기증이 느껴지는지, 태웅의 입을 빌어 재호가 말했다.



“지금 내 의식 레벨이 어떻게 되지?”
“라이딩 레벨은 원장님이 100%고, 태웅 대장은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지금 라이딩 레벨 말고! 내 의식 자립 레벨!”

태웅의 몸을 한 재호가 버럭 성을 냈다. 재호가 화를 내는 모습에 당황한 태섭이 대답했다.

“원장님 의식 레벨은 80프로입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79프로… 78프로… 바이탈 레이트가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호는 아직인가?”
“네, 아까 급히 무전이 왔는데 그 뒤론 연락두절입니다.”

태웅이 고민하다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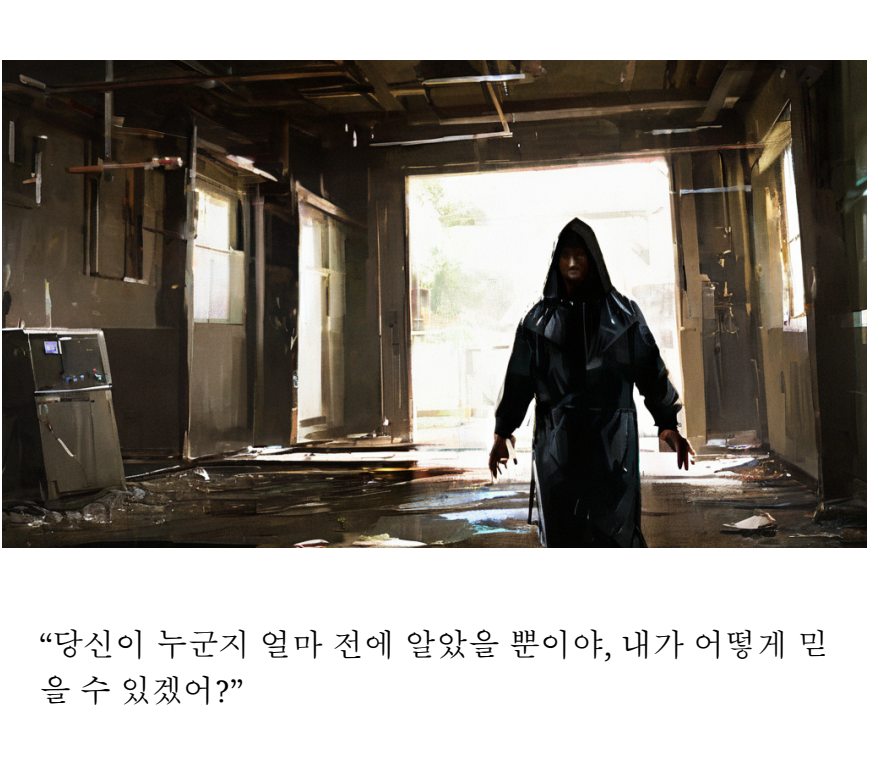
“캣츠아이를 활성화 해 줘.”
“네? 지금 캣츠아이를 활성화 하면 멜트다운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해달라면 해 줘! 이제 시스템을 끄고 집도하겠다!”

대원들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 나왔다.

❖

“자네는 나를 믿나?”

네모 기지 안에서는 백호의 의식이 들어있는 동녘이, 맞은 편에 검은 사제복을 입은 백호를 마주하고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 얼마 전에 알았을 뿐이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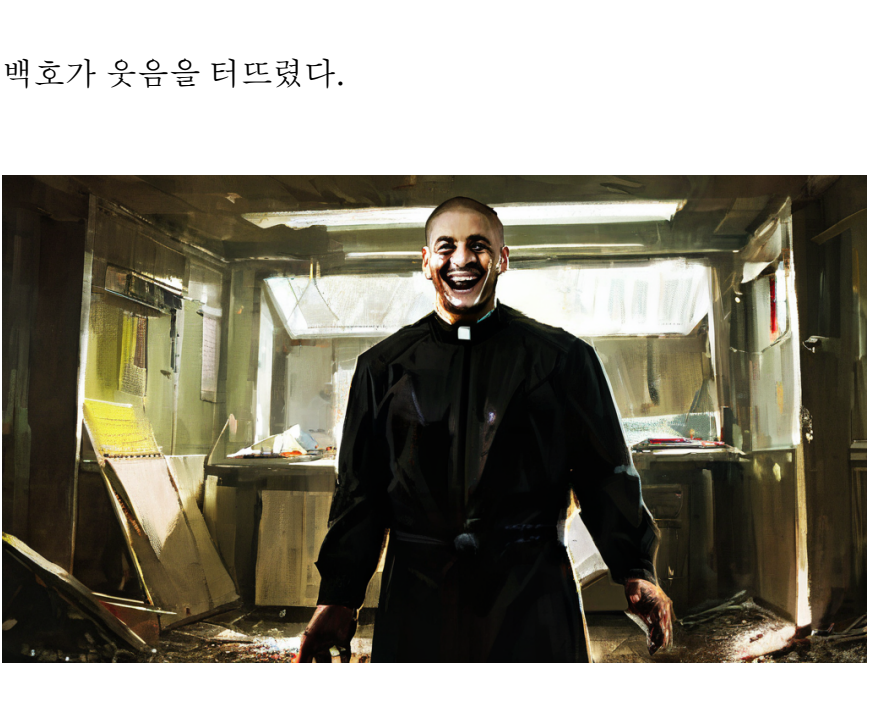
백호가 실 없이 웃으며 말했다.

“하긴 그렇지. 내가 질문을 다시 해보겠네. 그럼 자네는 자네를 믿나?”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인데.”
“자네 안에 내 기억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알았고, 자네가 내 크론이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래도 누군지 헷갈린다고?”
“나는 그래도 아직 내가 동녘이라고 생각해. 기억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조악하게 촬영된 영화를 본다는 생각 밖엔 들지 않아.”

미묘한 표정을 짓는 백호를 보며, 동녘이 이어 말했다.

“게다가 지금 당신이 내 앞에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당신일 순 없잖아?”

백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늘 클론의 딜레마이긴 했지. 어느 한 쪽을 죽이기 전에는 두 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동녘이 총을 고쳐 쥐었다.

“그런데 왜 나를 불렀고, 지금 여기 나타났지?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왜 나를 서창의 손에서 크게 했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 나를 찾아오지 않은 거지? 오리엔티스에라도 복귀하면 됐잖아? 당신의 기술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백호가 그만하라는 듯 ‘워워’ 소리를 내며 손짓했다.

“그걸 내가 다 말로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지금 아직 자네에게 막혀있는 내 기억을 열어주지.”

백호가 주머니에서 캣츠아이를 꺼냈다. 동녘의 동공이 커졌다.

“그건 또 왜 당신이 가지고 있지?”

동녘은 아까 보였던 환상 속에 여섯 개의 캣츠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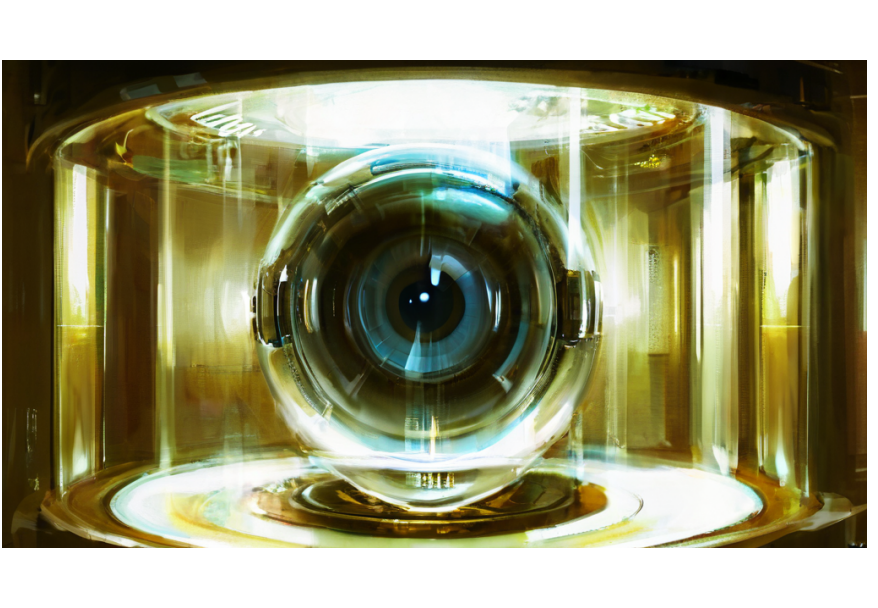
“도대체 캣츠아이는 몇 개나 있는 거야? 그거 다 당신이 만든 거야?”
“이건, 주어진 것이야.”

백호가 대답했다.

“누구에게서?”
“그건 나도 잘 모르고, 아마 한재호도 잘 모를 것이네.”
“한재호? 나한테 있는 기억으론 당신이 캣츠아이와 소통하고 있는데?”
“그건 내 기억이 아니야.”
“그럼 아까 느꼈던 그 기억은 다 한재호의 기억인가? 혹시 내 의식을 공유한다면 당신도 내가 느낀 기억들을 알 수 있나?”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만. 그러나 텔레파시 수준이기에 다 느끼지는 못해. 우린 그냥 아주 가까운 쌍둥이 비슷한 거지.”

동녘이 혼란스러워하자 백호는 눈을 감고 캣츠아이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자자, 이제 그만. 내 이래서 말로 설명하기 귀찮아했던 건데.”



캣츠아이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동녘의 동공이 커지며, 기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

❖

어딘지 알 수 없는 공간, 아마도 백호의 기억 속.

서창이 다가와 품 속에서 캣츠아이를 건네며 말했다.

“자, 여기.”
“이건 또 어디에서 찾았나?”
“여의도의 지하 벙커에 있었네.”
“재호에게도 알렸나?”
“아니, 아직.”

캣츠아이를 살피던 백호가 말했다.

“자네, 나를 빨리 죽여주겠나?”

서창이 놀라며 대답했다.

“자네를 죽이다니, 왜?”
“재호가 바실라를 불러내고 있는 것 같네.”
“재호가? 바실라를? 그건 어떻게 알았는데?”
“그리고 소연이 죽은 날, 소연을 쫓은 건 내가 아니었네.”
“아니 그럼, 혹시 재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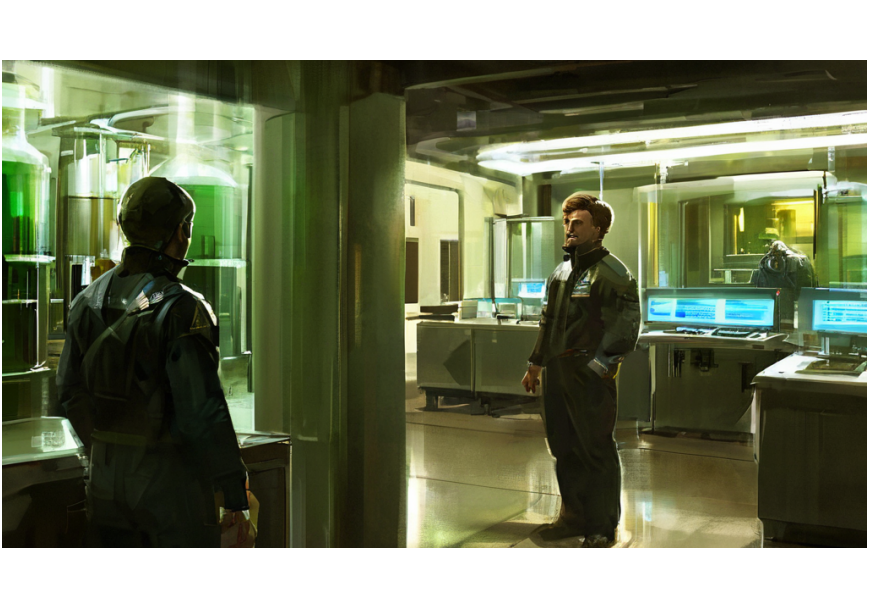
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날 내가 아픈 틈을 타서 재호가 내 몸을 라이딩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소연을 겁탈하려 했었고. 소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그렇게 되었고….”
“자네 기억에 남아있나?”
“내 기억에 재호의 기억이 섞였어. 그래서 바실라 의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보았네.”

서창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어차피 바실라는 자네의 편이 아니었나? 재호의 말을 들을까?”
“바실라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그들은 세상을 재편하고 싶어할 뿐. 인간의 시스템화. 세피로트의 나무를 완성하는 것이 그들의 꿈일세.”
“클론이랑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적인 클론을 통해서는 인류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통제 상태에 두려는 거고, 그래서 소연의 AI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 나아가서는 엔지누스를 꿈꾸지.”
“엔지누스? 지난 번에 말한 신인류 말인가?”
“응… 그들은 14만 4천의 정예 인류를 꿈꾸고 있네. 이게 비유인지 실제 수인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신인류로 진화시키고 싶어해.”

서창이 잠시 생각을 정리하다 문득 깨달은 게 있는지 말했다.



“태웅에게 실험해왔던 게 그건 아닌가? 이제 와서 나에게 이 얘기를 다 해주는 이유는 뭐지? 자네야말로 바실라에게 협조하고 있던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더 이상의 기술이 재호에게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재호를 죽여야지!”

서창의 목소리가 커졌다.

“재호는 이미 바실라가 보호하고 있어서 그래!”

서창보다 더 큰 목소리로, 백호가 소리쳤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어?”

저 멀리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을 향해 걸어오는 재호를 보고 서창이 당황하는 가운데, 재호가 백호가 든 캣츠아이를 보고 달려들었다.

“캣츠아이! 서창! 또 어디서 찾았나?”

서창이 대답할 말을 궁리하는 사이에 백호가 대신 대답했다.

“어, 이거 모조품이야. 내가 한 번 만들어봤는데, 한 번 실험해주겠나?”
“이걸 만들었다고? 제대로 기능은 할까? 설계도는?”
“설계도는 아직…”

재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백호, 자네도 알겠지만 이건 인류를 위한 기술이야. 자네의 기술도 인류의 자산이고. 다 데이터화 해야 해. 그런 조건으로 우리 오리엔티스도 설립이 된 거고. 물론 자네가 장이지만, 그건 지켜줬으면 하네.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는 걸로. 알지?”

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서창이 태웅에게 실험을 하고 있던 백호를 찾아와 총을 발사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

어린 태웅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서창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었다.

Continued to ep.19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